



부활 제2주일(4월 16일)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서 오셨다. (요한 20,26)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7-28)

믿기를 거부했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뺨속까지 파고드는 절절한 고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4. 27.)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요한 20,19)

지금 나를 두렵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요한 20,20)

최근에 나를 기쁘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그는 나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당한 토마스였습니다.

다. 그런 그가 스승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기적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눈으로 확인하며 감격했던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스승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활 역시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예수님을 만나자 돌변합니다.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 봐야 믿었던 말이 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새삼 마음이 바뀔 토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숭한 기적을 보아 왔던 토마스였습니다. 그의 변신은 예수님의 애정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자신을 위해 두 번 씩이나 발현하신 스승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물증과 빈틈없는 이론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